

아시아기록 쓴 황선우 “내년 아시안게임도 기대하세요”

쇼트코스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 2연패

이정훈 총감독, 황선우 극찬 “천재는 천재”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코스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에서 2연패를 달성한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19·강원도청)가 내년 아시안게임에도 가장 높은 곳에 서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황선우는 지난 18일 호주 멜버른의 스포츠 앤 아쿠아틱 센터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선에서 1분39초72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땀다.

이 대회 자유형 200m 2회 연속 우승으로, 결선에서 세운 1분39초72는 아시아 신기록이다.

앞서 남자 계영 800m 결선에서 자신이 기록한 아시아 기록(1분40초99)을 이틀 만에 1초27이나 단축한 것이다.

2009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경영월드컵에서 파울 비터만(독일)이 작성한 세계 기록(1분39초37)과는 0.35초 차이다.

황선우는 예선에서 손가락 부상을 당해 완벽한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대기록과 함께 우승을 차지하며 내년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통해 금의환향한 황선우는 취재진과 만나 “몸이 안 좋아서 힘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다. 올해 전지훈련을 통해서 턴, 돌린 동작과 관련해 많은 기술을 배웠다. 페이스 조절 능력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예선 경기 마지막 터치 과정에서 오른쪽 중지를 다친 황선우는 “예선 때 정신없이 경기를 치르다가 터치하는 동작에서 손가락을 다쳤다. 결선까지 2시간 남은 상황에서 통증이 지속됐지만 8위로 결선에 오른 것도 기쁘다고 생각해서 참고 레이스를 펼쳐 좋은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다쳤고 국제대회 8번 레인에서 경기를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경쟁자들의 레이스를 볼 수 없어 힘들었지만, 아르데날린이 나오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다”고 웃었다.

황선우는 라이벌인 루마니아의 다비드 포포비치(1분40초79), 영국의 톰 딘(1분40초86)과의 경쟁에서도 웃었다.

그는 “포포비치(18)와 딘(22) 모두 아직 어

려서 은퇴할 때까지 선의 경쟁을 펼칠 것 같다. 경쟁을 통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수영사를 다시 쓰고 있는 황선우는 내년에도 더 높은 곳을 향해 질주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올 한 해 열심히 보내면서 경험이 많이 쌓였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더 좋은 기록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특히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유력한 황선우는 “자유형 200m에서도 이 기량을 잘 유지한다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시안게임 수영 종목에서 많은 메달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황선우는 계영 800m에서도 양재훈(24), 김우민(21 이상 강원도청), 이호준(21 대구광역시청)과 함께 출전해 결선에서 6분49초67의 기록을 세우며 사상 최고의 4위에 올랐다.

황선우는 “계영 800m 성적도 자유형 200m 만큼 만족스럽다. 선수들 모두 예선부터 결선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경기를 준비했고, 좋은 성적을 냈다. 앞으로 계영 800m에서도 메달 획득을 목표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수영대표팀 총감독도 자유형 200m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금메달을 차지한 황선우가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연패를 달성한 황선우를 ‘천재’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그는 “황선우가 손가락을 다쳐 선수보호 차원에서 힘들면 포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며 “코치진도 39초라는 기록에 놀랐다. 천재는 천재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황선우의 턴과 돌린 능력은 외국 선수 못지않다”며 “황선우뿐 아니라 전략 종목인 남자 계영 800m도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 좀 더 신경 쓴다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계영 800m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전남 미용고 나윤서...한·일학생사이클대회 3관왕·최우수선수

전남체고 김채연...금 1개·은 1개·동 2개 수확



전남도체육회는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 그린동경기장에서 열린 '2022 한·일 친선 학생사이클대회'에서 전남미용고 나윤서(사진 오른쪽)와 전남체육고 김채연이 금메달 3개·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전남체육회 제공)

전남미용고 나윤서와 전남체육고 김채연이 2022 한·일국가대항 학생사이클대회에서 금메달 3개 등 다수의 메달을 수확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 그린

동경기장에서 열린 '2022 한·일 친선 학생사이클대회'에서 전남미용고 나윤서와 전남체육고 김채연이 3관왕·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대회는 한일 사이클 유망주 19세 이하 7명씩 선발됐으며 전남은 나윤서와 김채연이 이름을 올렸다.

나윤서는 스프린트경기에서 11초 836, 김채연이 11초916의 기록으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경륜경기에서 나윤서가 12초168로 금메달, 김채연이 동메달을 차지했다. 또 팀 스프린트 경기에서 나윤서와 김채연이 팀을 이뤄 출전해 47초94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500m 독주경기에서는 나윤서가 37초435로 은메달, 김채연이 37초473으로 동메달을 수확했다. 나윤서는 이번대회 3관왕을 차지해 최우수선수상까지 수상했다.

정동 전남자전거연맹회장은 “이러한 국가대항전에서 이 같은 성적과 기록을 거두 매우 기쁘고 두 학생에게 축하한다”며 “이번 한일국가대항 학생사이클 대회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을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벤투호 유일 레드카드는 벤투 본인

대한축구협회, 벤투 재임 4년4개월 기록 집계
35승13무9패...브라질에 3패, 일본에 2패 기록

파울루 벤투 감독이 2022 카타르월드컵을 마치고 고국 포르투갈로 돌아간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벤투호 관련 기록을 결산했다.

벤투 감독은 2019 UAE 아시안컵과 두 차례의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예선과 본선을 치렀다. 그는 최종 목표였던 카타르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달성했다.

2018년 8월 한국 축구대표팀 제80대 감독으로 부임한 벤투 감독은 4년4개월 동안 태극전사들을 지휘했다. 대한축구협회와 맺은 계약에 따라 재임 기간은 2018년 8월22일부터 카타르 월드컵 한국팀의 마지막 경기였던 2022년 12월6일까지다. 정확히 4년106일이다.

4년4개월은 지금까지 최장기였던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2년9개월(2014년 9월~2017년 6월)을 넘어서는 역대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단일 임기 최장 기록이다.

벤투 감독은 월드컵 직후에 부임해서 다음 월드컵까지 치른 최초의 감독이기도 하다. 과거 이회택, 김호, 차범근, 허정무 감독도 대표팀을 맡았을 때 월드컵 예선과 본선을 이어서 치르기는 했지만 이전 월드컵이 끝난 직후에 부임한 것은 아니었다.

벤투 감독 체제에서 통산 A매치 성적은 57전 35승13무9패다.

벤투 감독의 승률은 61%다. 국가대표팀 전임 감독제가 시작된 1992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높은 승률이다. 승률 1위 기록은 39경기에서 27승을 거둔 슈틸리케 감독이 보유하고 있다.

35승은 역대 한국 대표팀 감독의 단일 재임 기간 중 최다승 기록이기도 하다. 벤투 감독은 부임 이후 올해 6월 브라질에 패하기전까지 홈경기에서는 1번도 지지 않고 20경기 연속 무패(16승 4무)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는 1990년 이후 홈 경기 최다 연속 무패다.

9패를 당한 상대는 브라질에 3패로 가장 많다. 일본(2패)에 이어 카타르, UAE, 멕시코, 가나에 각각 1번씩 졌다.

벤투 감독 취임 후 첫 경기였던 2018년 9월 친선경기 코스타리카전(고양종합운동장)에서 나온 이재성의 골을 시작으로 카타르 월드컵 브라질전 백승호 골까지 정확히 100골이 나왔다. 57경기에서 100골을 넣었으므로 경기당 득점률은 1.75골이다. 반면 46골을 허용해 실점률은 0.81골이다. 경기당 평균 1골 이상은 허용하지 않았다.

총 슈팅 숫자는 755개에 유효 슈팅은 299개였다. 경기당 슈팅 숫자는 13.2개, 유효 슈팅은 5.3개다. 755번을 쏘아 100골을 넣어 성공률은 13.2%였다.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경기는 2019년 10월



화성에서 열린 월드컵 2차 예선 스리랑카전(8-0)이었다. 골을 제일 많이 내준 것은 지난 6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전(1-5)이었다.

벤투 감독이 대표팀을 소집한 횡수는 총 27차례다. 27차례 소집 중 가장 많이 발탁된 선수는 골키퍼 조현우다. 조현우는 부상이 있었을 때 2번만 빠지고 모두 소집됐다. 그 다음으로는 골키퍼 김승우 24회, 수비수 김영권 23회다.

벤투호에 1번이라도 이름을 올린 선수는 모두 92명이다. 92명 중 벤투 감독에 의해 처음 A대표팀에 뽑힌 선수는 51명이다.

51명 중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선수는 39명이다. 이 가운데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데리고 간 선수는 11명(황인범, 조규성, 김민환, 나상호, 송범근, 백승호, 이강인, 윤준규, 송민규, 정우영, 조유민)이다.

A매치 57회를 치르는 동안 출전 선수 명단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선수는 김영권이 44경기, 황의조가 42경기, 2위, 황인범이 41경기, 김민환이 40경기, 손흥민이 39경기 출전했다.

벤투 감독이 치른 A매치에서 골 맛을 본 선수는 모두 28명이다. 황의조가 15골을 터뜨려 최다 득점을 기록했다. 황의조는 조지아(유류), 브라질(남미), 이집트(아프리카), 멕시코(북중미), 카타르(아시아), 호주(오세아니아)전에서 골을 넣어 모든 대륙 국가를 상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13골을 성공시킨 손흥민이 2위, 황희찬과 권창훈이 8골을 터뜨려 공동 3위다. 조규성과 김신욱이 6골로 뒤를 이었다.

한국 선수들은 벤투 감독 아래에서 57경기를 치르는 동안 1번도 레드카드를 받지 않았다. 슈틸리케 감독 시절인 2016년 홍정호가 2018 러시아월드컵 예선 카타르전에서 당한 이후 6년째 A매치 퇴장이 없다.

유일한 퇴장은 벤투 감독이다. 벤투 감독은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 경기 직후 주심에게 항의하다 레드카드를 받았다.

‘롤 모델’ 이상화 길 걷는 김민선 “아직 언니랑 비교 안돼”

올 시즌 ISU 월드컵 여자 500m 4연속 금메달
“100점 만점에 90점 주고파...컨디션적 아쉬워”



국제빙상경기연맹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여자 500m 금메달을 차지한 김민선이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올 시즌 월드컵 여자 500m 4회 연속 우승에 성공한 김민선(의정부시청)이 아직은 ‘롤 모델’인 빙속 여제 이상화와의 비교는 이르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의환향한 김민선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1~2차 대회 때 좋은 성적을 내서 3~4차 대회에서도 1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라며 웃었다.

김민선은 지난 17일 캐나다 캘거리 올림픽 오벌에서 치러진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1부리그)에서 36초96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이달 초 열린 ISU 4대륙 선수권대회를 포함하면 ISU 국제대회 5회 연속 금메달이다.

김민선은 “100점 만점에 90점 주고 싶다. 1~2차 대회 때는 기록과 전체적인 레이스 운영도 만족도가 높아서 거의 100점에 가까웠는데, 3~4차 대회 때는 좀 지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컨디션적인 부분에서 아쉬웠기에 10점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선은 이상화가 2013년 세운 세계 기록(36초36)에도 한 발 더 다가섰다.

한국 선수 중 월드컵 최다 연속 우승 기록은 이상화의 10회다. 2013년 3월 월드컵 파이널 2차 레이스부터 2014년 11월 월드컵 1차 대회 2차 레이스까지 10차례 연속 우승했다.

김민선은 이상화와의 비교에 “언니는 오랫동안 1위를 지켰다. 또 세계 기록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선수다. 아직 언니랑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니처럼 앞으로든 꾸준히 1위를 지켜가면서 세계 기록에 도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상화의 세계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선 스타트 보완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는 “이전부터 항상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다. 그래도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마음처럼 잘되지 않아서 어렵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완을 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